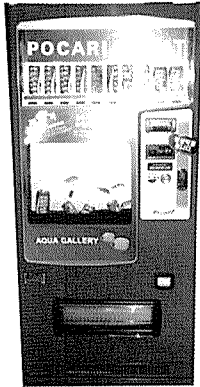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자판기 보셨나요



"세상에 별에 별 물고기들이 다 있네?" 이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세계 각국의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코엑스 아쿠아리움. 국내 최대의 수족관인 이곳에 얼마 전 색다른 볼거리가 또 하나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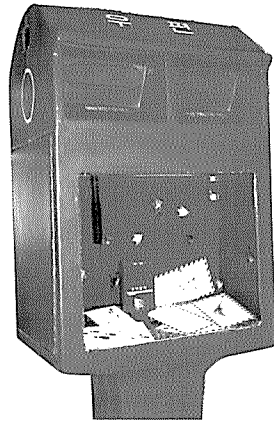
^ ^{수족관}으로 입장을 하면 바로 나타나는 아쿠아 갤러리. 이곳에서는 자판기 내부에서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이색 풍경을 접할 수 있다.



수족관으로 입장을 하면 바로 나타나는 아쿠아 갤러리. 이곳에서는 자판기 내부에서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이색 풍경을 접할 수 있다.

코엑스 갤러리는 설치미술과 수중생물을 접목한 코너. 자판기와 공중전화부스, 냉장고, 우체통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어항이 들어간 이색 제품으로 특수 개조해 형형색색의 물고기 40여종, 1천마리가 헤엄치는 볼거리를 연출하고 있다.

KT에서 협찬을 받은 공중전화부스 수조는 수압을 견디고 물에 새지 않도록 개조해 3톤의 물을 채웠고, '래빗피시'와 '그린 크로미스' 등 어여쁜 물고기들이 안에



서 헤엄을 치도록 했다. 우체통 안에는 네모난 몸통으로 편지봉투나 엽서들 연상시키는 '땡겨 피시'가 노닐고 있다.

우체통 옆으로는 동아오츠카의 협찬을 받아 설치한 캔자판기를 볼 수 있다. 제품의 중단에 수조를 넣어 물고기가 자판기 안을 노니는 이색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아쿠아리움 어류연구팀과 수조 제작업체가 제작한

이 어항 내장 자판기는 지난 7월 16일 설치된 이래 관람객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판기 안에는 동아오츠카 이온음료 용기 색깔과 비슷한 '블루 시클리드'가 헤엄을 치고 있다. 블루 시클리드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자판기에 대한 선호도 역시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고정관념을 타파한 자판기의 파격 변신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는 어릴 때는 연한 하늘색이지만 점차 진한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물고기. 관람객들은 자판기 안의 이 물고기를 구경하며 무척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게 보통이다. 또한 워낙 이색적이다 보니 이 자판기가 정말 작동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도 많다.

가족단위 관람객, 연인들은 이 자판기 앞에서 사진 한 컷 찍고 가는 것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지금은 캔자판기 1대만이 설치되었지만 관람객들의 반응이 더 좋아지면 추가 자판기 설치도 가능할 듯 하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홍보마케팅 팀 박영희씨는 "앞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좀더 예쁜 전시물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커피자판기 등 다른 종류 자판기의 추가 설치도 검토해 보겠다" 고 말했다.

아이디어에는 따라서는 자판기도 얼마든지 이색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아쿠아 갤러리의 자판기를 통해 느낄 수가 있었다. 좀더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자판기에 대한 선호도 역시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고정관념을 타파한 자판기의 파격 변신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자판기의 변신은 무죄!!!

